



‘올드 빈티지 슈라즈가 주는 순수한 기쁨과도 같은 와인’

다렌버그 가든 오브 딜라이트

The Garden of Extraordinary Delights

지역	호주 > 남호주 > 맥라렌 베일		
포도품종	슈라즈 100%		
알코올	14.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맥라렌 베일의 슈라즈가 보여주는 러블리함을 그대로 담은 와인으로 묵직한 바디감과 과실 풍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시원한 민트의 느낌과 유칼립투스, 붉은 과실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우아하지만 정제된 탄닌감, 적당한 산도감을 느낄 수 있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흰 육류/익힌 생선/익힌 채소/치즈/훈제, 염장 음식/피자, 파스타		



제품설명



자연적으로 형성된 아름다운 빈야드에서 양조된 '진정한 기쁨(Delights)'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뛰어난 풍미와 겹겹이 쌓이는 듯한 다양한 아로마의 향연이 매력적인 와인으로 벨벳처럼 부드러운 탄닌과 구조감이 돋보인다. 집중도있는 풍미의 와인이지만 잘 잡힌 밸런스로 과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수상내역



2013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4점
 2013빈티지 제임스 홀리데이 James Halliday 95점
 2011빈티지 와인 엔수지애스트 Wine Enthusiast 89점

와이너리



다렌버그는 남호주 대표 부띠고 와이너리로, 전통적인 양조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슈라즈 & 비오니에를 블렌딩 하는 파격적인 시도와 스토리를 담은 독특한 제품명 등 호주에서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인정받고 있는 와이너리이다. 다렌버그는 남호주 지역 프리미엄 레드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맥라렌 베일에 위치해 있으며 1912년 조셉 오스본(Joseph Osborn)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가족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Australia's First Families of Wine (호주 가족 경영 와이너리)의 12개 와이너리 중 하나로 호주 와인 역사를 반영하는 와이너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와인 & 스피릿(Wine & Spirit) 매거진으로부터 올해의 100대 와이너리로 총 4회 선정, 디켄터(Decanter) 매거진으로부터 2017년 올해 방문해야 할 와이너리로 선정되었다. 레이블의 레드 스트라이프가 특징인 프리미엄 와이너리이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